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**
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**앞좌석에** 앉아주시면,
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

2. 광고

- ① 오늘은 주일학교 모임을 쉽니다.
- ② 설 연휴 기간(1월31일-2월2일, **월요일-수요일**)동안 아침예배를 쉽니다.
화요일 저녁 성경공부 모임도 쉽니다.
수요일 저녁예배는 드립니다.
- ③ 2월 필독서를 판매합니다. 『광야를 읽다』(이진희, 두란노)
책값은 1만원입니다.
- ④ 2월 재정보고를 주중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.
- ⑤ 다음 주일(2월 첫 주일)부터는 주일예배 때 <마태복음 강해>를 시작합니다.
- ⑥ 교회 어르신들께 작은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(가정별로 드립니다).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언약교회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 이 / 목사-조호진 / 전도사-김숙영, 이현호, 김현선
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길 56 현대아파트상가 3층
☎ 02-875-7760 <http://www.unyak.org> <제24-05호 / 2022년 1월 30일>
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은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

주일	유·초등부	오후 3시
	중·고등부	오후 12시 50분
	주일예배	오전11시 // 오후2시
주중	<아침예배>	오전9시30분(월-금)
	수요일예배	저녁 7시30분

온라인
연감

국민은행 206001-04-148 682 (예금주/언약교회)
신한은행 100-032-008 667(예금주/언약교회)
우리은행 1005-901-708 982 (예금주/언약교회)
우리은행 1005-202-531 785 (예금주/언약교회)
농협 355-0070-8191-13 (예금주/언약교회) 신협 131-021-333882 (예금주/언약교회)

	이번 주(1/30)	다음 주(2/6)
봉사 안내	설거지	없음
	오후통독	없음(마가복음 1-2장)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 사도신경 일어서서
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 찬양 찬송가 350장 “우리들이 싸울 것은” 다함께
 대표기도 정순규, 윤지영
 말씀 에베소서 6장 10-20절 말씀 송영욱, 박민서
 말씀 『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』 조호진
 결단의 기도 다함께
 성도의 교제 다함께
 광고 인도자
 찬양 “날 구원하신 주 감사” 다함께
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- ▣ 예배 후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(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)

예배 위원	다음 주(2/6)		2주 후(2/13)
	대표 기도	최은애, 장우진	신채홍, 박혜정
성경 봉독	박영복, 이준수	황한일, 전계현	

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0-20절 말씀(개역개정판)

- 10 끝으로
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
-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
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
-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
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
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
-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
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
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
- 14 그런즉 서서
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
-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
-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
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
-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
-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
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
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
-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
 내게 말씀을 주사
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
-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
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